
2020년 제1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3. 27. ~ 4. 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3. 27.	시청률	0.035

【총 평】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북마크> 62회는 '북한의 국가존망이 걸린 코로나19 차단전'과 '돼지열병 방역 총력전'등 시의성 있는 감염병 관련 아이টে을 순발력 있게 다루었다. 북한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전염병 대응 전담의사로 근무경력이 있는 패널의 생생한 증언으로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HOT 단박 검색어'에서는 북한 방역성공 과시, 자력갱생 코로나19 퇴치법, 교육기관 방학 무기한 연장, 김정은 평양 복귀 후 평양종합병원 착공과 10월 완공 목표 의미 등을 다루었다. <북마크TV>에서는 식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조선중앙TV방송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58회에서 62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에 관한 북한 상황을 집중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반도 정세 변화, 남북보건협력 실효성,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내용을 다뤄 주목도를 높였다. 남북 협력가능성을 진단한 기획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넘어서 평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구성 및 내용】

<여러분의 북마크> 제62회도 '코로나19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박톡'에서는 이번 주 HOT 단박 검색어를, 두 번째 '북마크TV'에서는 북한의 변화하는 재난 대응법을 살펴보았다.

<단박톡>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었다. 북한도 예외없는 코로나19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실상이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에 대한 강도가 그대로 전해졌고 교육부의 학교 방학의 무기한 연기 등의 코로나19 감염 위기로 인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자체 개발한 방역물품 소개, 세계 최초 생산한 북한 치료제 효과 등 북한의 실상을 엿볼 수 있었다.

<북마크 TV>는 북한의 변화하는 재난 대응법을 살펴보면서 국가 존망이 걸린 코로나19 차단전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상황을 알려주었다. 북한의 돼지열병 전염 예방이 중요한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고질적 식량난과 경제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에 공감되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북한의 방역 체계의 기술적 수준 및 의료약 치료제 개발 수준이 아직까지 민간 처방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식량난과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그동안 군사적인 부분을 과시하고 국가다운 면모를 갖춘 듯 과대 허위 과장을 보여준 것에 대해 어디까지가 북한의 실상인지 시청자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계기였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3. 28.	시청률	0.008

【총 평】

<밥보다 법> 제4회에서는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다루었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로서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도 가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 피싱의 유형과 사례, 보이스 피싱을 피하는 방법과 가해자 처벌 등 소개해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이스 피싱과 점점 지능화 되어가는 다양한 수법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활용한 스미싱 등을 두루 소개해주었다.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는 없으므로 보이스 피싱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구성 및 내용】

보이스 피싱 피해는 범인을 잡더라도 돈을 되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귀를 기울일만한 내용이었다. 특히, 차단용 애플리케이션 소개나 신종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수법, 금감원의 실제 문자와 가짜 문자를 비교하는 대목이 특히 유익했다.

■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가 많은 연령과 대상

특정기관 사칭 수법은 주로 장년층 대상으로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피해가 생기고 있다.

■ 메신저 해킹을 통한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프로필 등을 수정하여 사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지인 연락처를 해킹하여 지인에게 본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스팸차단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고했다.

■ 금전적 피해 없이 보이스 피싱 신고 가능한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진행하지만 제3자가 고발한 경우는 직접 고소한 것만큼 도움을 받기 어렵다. 그렇기에 보이스 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녹음을 하면 효과가 좋다.

■ 신종 보이스 피싱 스미싱

모바일 청첩장, 민방위 훈련 안내, 택배 안내 문자 등의 URL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력서를 취업사이트에 올렸는데 취업되었다고 연락을 해서 어플 설치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 코로나19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활용하여 확진자 동선 문자, 확진자 본인확인 문자에 링크를 삽입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한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3. 29.	시청률	0.012

【총 평】

<PD리포트 이슈본> 제291회 '코로나19 극복, 국민의 힘으로!'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비롯해 마스크 양보와 기부에 앞장서는 시민들, 어려움에 처한 대구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광주시민들의 온정이 집중 조명돼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탐사보도 형식으로 접근하는 진행자 특유의 개성이 살아났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시청자들에게 극복의지, 국민통합, 나눔과 배려의 메시지를 소개한 활약이 돋보였다. 현장 탐방과 생생한 인터뷰로 메시지 전달력과 흡인력을 높여 감동과 힐링을 선사했다.

또한, 지난 290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사람들'편에 이은 연속기획으로 국난 극복의지와 국민통합을 이끄는 '의제설정'이 탁월했다. 사제지간 의사의 사명감어린 자발적 봉사,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광주시민들의 온정의 물결, 마스크 양보와 기부에 나선 시민의식 등 극적인 구성이 몰입감과 감동을 증폭시켰다.

【구성 및 내용】

<PD 리포트 이슈 본> 제291회는 위기상황의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다룬 '코로나19 극복 국민의 힘으로!'편을 방송하였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밀도 있게 조명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코로나 19 극복기'를 세 가지 주제 '의료봉사, 기부, 마스크'로 나눠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었고, 위기 탈출을 향한 국격을 쉽고 유익하게 전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의료분야에서의 철저한 예방대책과 일반 시민들의 개인위생 준수 및 다양한 선행들을 꼼꼼히 담아내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십시일반 민주 시민의 힘을 보여준 '코로나19 극복' 동참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획의도가 잘 드러났다. '코로나19를 더불어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은 '의료봉사, 대구와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달빛 동맹, 마스크 양보하기와 천 마스크 기부'로 그려졌고,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잘 담아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봉사 중인 의대 교수, 전직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자발적으로 동참한 의료봉사자들의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다. 대구와 광주 두 도시에서 보여준 따뜻한 기부와 달빛 동맹, 대구 경기장에 쌓인 기부 물품, 마스크 5부제 실시를 통해 본 문화 시민 의식, 마스크 구매 시 어르신에게 순서 양보하기, SNS 마스크 안사기 운동과 마스크 안 사기에 동참한 시민들, 인천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영종 분소 자원봉사자들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기부한 천 마스크, 천 마스크를 세탁해주는 세탁소 사장님 봉사 등 전국적으로 퍼진 구호 물품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격을 잘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29.	시청률	0.093

【총 평】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이번 방송에서는 주방용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주인공이 회사를 매각하고 강원도 홍천군의 한 자연휴양림을 매입하여 형제들과 함께 삶의 여유와 건강을 찾아가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귀촌 5년차 주인공은 평생 사업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다가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누리지 못한 삶의 여유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충분히 공감되었다. 특히, 4형제가 함께 귀촌생활을 하고 있어 색다른 장면들도 많이 보여주었고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서 강조가 되어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했다.

【구성 및 내용】

전반부에는 일반 귀촌 농가의 모습처럼 가축들을 돌보고 장작을 패고 직접 지은 집을 소개하고 등산과 일출을 감상하는 일상생활이 전개되었다. 중반 이후부터는 주방기구 사업을 하던 당시의 모습부터 현재 진행 중인 죽염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귀농다큐 살어리랏다>는 시간의 순서대로 주인공의 행동반경을 따라가는 형식인데 주인공의 일상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구성도 명확했다.

공작새를 키우는 부분에서 곧 주인공이 평범한 귀촌인은 아니구나 하는 점이 느껴졌다. 닭들에게 음식찌꺼기 모이를 주면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자연의 삶을 높이 평가하거나 공짜로 계란을 얻는 소소한 고마움을 강조해서 시사하는 바도 컸다.

과거 병치레로 동상에 걸려 몇 년간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으며 잠을 청해 위도 상당히 상했는데, 사업을 접고 귀촌한 이곳에서 건강을 되찾았다. 가을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운동회를 하기도 한다고, 가족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노천탕을 만들었다.

집의 내부가 소개되면서 여유로운 귀촌 생활이 보여졌는데, 주문 제작으로 만든 캠프나무 침대, 휴양림 스타일의 편백 나무벽, 노촌 목욕탕, 아궁이 삼겹살 등 일반 귀촌 생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곳에는 주인공의 오형제중 사형제가 함께 살고 있다.

주인공은 '사업하는 것이 자전거 한 대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언급했는데, 체험에서 오는 진솔한 인터뷰가 돋보였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들이 보는 시각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참신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말미에 사업을 다 접고 귀촌 생활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소신 발언을 해서 더욱 귀촌의 평온함을 부각시켰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죽염 굽는 것을 실패했지만 실패를 큰 경험으로 삼겠다는 발언과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가족의 화목이라고 강조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인간의 최종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3. 31.	시청률	0.007

【총 평】

<국민리포트>는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아이템으로 구성해 시의성을 살린 기획이었다. 코로나19가 해외 총선거에 미치는 영향, 7억땅 기부 미담, 전동 킥보드 안전불감증 고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격려하는 영상편지 등 다채롭게 구성돼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재외국민 총선거 투표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코로나 사태로 투표에 차질을 빚는다는 속보를 발빠르게 보도한 해외국민기자의 리포트가 주목도를 높였다. 또, 50년간 구두를 닦아 장만한 7억 땅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선포 내 놓은 구두수선점 업주의 미담은 국민리포트를 더욱 빛내는 아이템이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불감증을 고발한 리포트는 취재력과 구성력이 탁월한 수준급 리포트였다. 현장고발, 관계자 인터뷰 구성, 대안제시, 캠페인성, 정책알림이 역할, 그래픽 구성이 돋보였다. 이와 함께 연중기획 국민 영상편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주인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는 내용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성 및 내용】

■ 내일부터 재외국민 투표... '이동제한령' 선거 비상

재외국민 총선거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사태로 투표에 차질을 빚는다는 속보를 발빠르게 보도했다.

호주에서는 기존 5개 투표소를 운영하려 했으나 호주정부의 이동제한으로 2개소가 취소되고 2인 이상의 모임 역시 금지조치로 재외국민 투표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호주뿐만 아니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소가 미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총선의 재외 유권자가 총 17만 7천여 명이지만 투표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 50년 구두 닦아 장만한 7억 땅 기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두방을 운영하며 일군 7억 원여의 땅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특히, 가족들이 아버지의 결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에 한층 더 귀감이 되었다.

■ 사고 잦은 전동 킥보드 '안전불감증' 여전

전동 킥보드의 안전불감증을 고발한 리포트는 환경감시 기능을 충분히 살린 기획성, 취재력과 구성력이 돋보인 리포트였다. 서울 중심가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에 접수된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2년 사이 5배나 증가했다.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 주행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3. 31.	시청률	0.000

【총 평】

<톡톡 사이다 경제> 제231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전 세계 연대 흐름과 글로벌 위기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70만, 글로벌 위기 공동 대응방안'편을 방송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진단하고 각국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 및 글로벌 공조 동향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국외의 사례를 먼저 다루고 후반에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각국 간의 대응 체제를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도 있어 좋았고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났다. 세계 확진자 추이 분석과 세계가 협력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는 내용을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그 심각성을 진단하고 각국의 감염자 확산 수치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특히 미국, 이탈리아, 일본의 상황을 원인부터 결과까지 분석적으로 잘 다루었고,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이탈리아의 발코니 응원법을 소개했다.

또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코로나19 현황을 살피며 도쿄 올림픽 연기와 함께 감염자가 증가한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관심도를 높였다. 일본이 올림픽 연기 이후 확진자수가 폭증했음을 살펴볼 때 합리적인 의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일본이 내놓은 세금감면·금융조치 포함 630조 원 규모 이상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진단부터 시작해서 각국의 진단키트 배송, POC 검사 도구 개발, 파이프라인 개설 등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언급되어 흥미로웠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 상황에 G20-EU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마련한 세계경제에 재정 투입, 의료지원체계 마련, 국가 간 무역 장애 방지를 위한 대응 등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시스템과 진단 키트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유전자 증폭검사 기법 국제 표준' 상정이 눈앞에 있다고 설명해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10년간 정부기관과 의료업계의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했음을 적절히 전달했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현황을 밀도 있게 분석해서 전하고 정부가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정보전달 측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중심으로 지급 방식과 대상, 구체적 방침 등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잘 다루었고, 의료한류에 관해 다룬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4. 2.	시청률	0.173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제27회는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도 국민을 위해 달린다!'편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활약상을 방송하였다. 119 소방대원들과 의용 소방대원들의 활동 모습을 잘 담아냈고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나 최신 의료 장비에 대한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과 감염 확산 위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헌신, 전문 장비를 갖추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철저히 훈련하는 모습 등을 깊이감 있게 조명했다.

2020년 4월 1일은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이원화 된 지 47년 만에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천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구성 및 내용】

오늘 방송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최일선에 뛰어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소임에 정성을 다하는 119 소방공무원의 모습과 실제 방역 현장을 상세히 다뤘다.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기 전이나 하고 난후 소독 및 방역의 철저한 소독 과정을 보여주었고 방역과정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방호복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 현장속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소방대원의 직업 소명의를 넘어 헌신적인 모습을 담아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자세히 담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환자가 이송되는지 알 수 있어 매우 좋았고 소방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한 보호복 착용과 철저한 건강 체크 및 개인 방역에도 주의 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조명해 시청자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특히 오늘은 방호복을 착용하는 모습부터 공개하면서 이것을 입으면 벗기 힘들어 불편하기도 하고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마시는 것도 참고 일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어 실질적인 고충이 그대로 느껴졌다. 출동현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구에서 1주일간 지원을 나갔다가 왔지만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으며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달려갈 것이라고 말해 감동을 주었다.

대전서부 소방서와 세종 소방서를 통해 음압형 들것, 음압 차량 등 최신식 의료장비들을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뉴스에서도 음압기기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제 기능을 하는지는 자세히 다룬 적이 없어 아주 인상적이었다.

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마스크를 직접 배송하고 약국을 지원하고 지역 곳곳을 돌며 방역작업을 도와주었다.